

# 나주시 '영산강 르네상스 실현' 속도

###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상생 협약 강 수질 개선·물순환 체계 구축 국가 정원·친환경 축제 등 협력

나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영산강 르네상스 실현'에 손을 맞잡았다. 나주시는 지난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상생이라는 공동 목표로 '영산강 친환경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물순환 체계 구축에 따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우수 자연 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영산강변 생태계 보전과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등을 통해 주민들이 향유 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친수공간 확충에도 힘을 모은다.

나주시는 지난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2024 나주영산강축제 현장에서 '영산강이 주는 선물'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영산강의 생태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1회용품 없는 축제를 구현하며 방문객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올해도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영산강 정원에서 개최하는 2025 나주영산강축제 기간 일회용품 사용 제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친환경 축제 문화 확산을 도모할



윤병태(오른쪽) 나주시장과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지난 23일 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 '영산강 친환경 상생협력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영산강의 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기초 지자체 간 첫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깨끗한 영산강, 주민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주시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영산강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친환경 지역축제 문화 확산 등 지속가

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영산강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우 청장께 감사드린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 경험을 통해 영산강이 물순환, 생태계 보전적 기능뿐 아니라 지역을 살찌우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 강진군 사회적경제·예비마을기업 공모 선정

### 3개 기업...사업비 7900만원 확보

강진군은 최근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공모 사업에 관내 3개 기업이 선정돼 총 7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은 도내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춰 자립토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 장류 사업화를 위한 기획, 홍보, 제품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개발비와 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 지역특화사업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여행 체험프로그램과 로컬상품 판매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월 모집 공고 이후 2월 현장 실사, 3월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4월부터 약정 체결과 보조금 교부 절차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진군에는 사회적기업 8개소, 협동조합 52개소, 마을기업 3개소, 자활기업 4개소 등 총 67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립 기반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군 농가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과수 화상병 예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 장성군, 스마트폰으로 과수 화상병 예방

### 디지털 예방방제단 운영

장성군이 전남 지역 최초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과수 화상병 예방에 나선다.

장성군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 예방방제단'을 운영해 지역 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찰 과정에는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앱 '팜스플러스'가 활용된다.

이 앱은 의심 증상 등록과 병해충 정보 입력, 사진 촬영, 음성 메모 등의 기능을 갖춰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한 뒤, 올해부터 본격 도입했다.

과수 화상병은 전염성이 강한 세균병으로, 감염 시 폐열과 재배금지 조치가 내려질 만큼 위험하다.

군은 방제약제 지원과 함께 디지털 기반의 예찰 체계를 확대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박언정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디지털 예찰이 화상병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에서도 예방수칙 준수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 9월 12~14일로 연기

### 조기 대선으로 일정 조정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 추진위원회는 5월 16~18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5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를 9월 12~14일로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매년 5월 회진면 회진항 물양장에서 개최되는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따라 연기가 결정됐다.

장흥군과 축제 추진위원회는 선거와 축제가 중복

될 경우 선거법 준수, 지역 행정력 분산 및 안전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연기된 일정 속에 더욱 내실 있게 축제를 준비 할 것"이라며 "장흥이 가진 역사·문화적 가치는 물론, 마하수·정경달 장군과 이름 없는 민초들의 업적을 재조명하여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화순 재즈 축제·국제재즈데이

### 29일 화순 하나옴문화센터서

화순군이 오는 29일 오후 7시 화순 하나옴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화순 재즈 축제·국제재즈데이 in 화순'을 개최한다.

'화순 재즈 축제·국제재즈데이 in 화순'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2025년 국제 재즈데이를 맞이해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롭 반 바벨과 그의 트리오를 초청했다.

올해는 그의 정식 트리오가 전원 내한해 풍성하고 깊이 있는 재즈 사운드를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롭 반 바벨 트리오와 함께 드러머로 무대에 오르는 신원주는 화순 출신 청년 뮤지션으로 이번 협연을 통해 국내외의 재즈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개최된 재즈 축제에는 롭 반 바벨이 솔로로 참여해 화순 청년들과의 협연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공연은 화순 하나옴 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개최되며, 전석 무료 초대 형식으로 운영된다.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구글폼으로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감삼영 화순군 문화예술과장은 "세계적 아티스트가 화순에 방문한 흔적 없는 기회"라며 "국적을 넘어 소통하는 재즈 예술 공연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담양군,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 면허 취득 도움 안전사고 예방

담양군이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위탁교육이 성과를 내고 있다.

3t 미만 소형건설기계는 농민들이 다양한 농작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농기계이지만 제대로 된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통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 42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23일까지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위탁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면허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관련 법규와 정비 이론, 도로 통행, 건설기계 장치 등의 이론교육과 실제 장비 운전과 취급 요령 등 실습 교육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론과 실습 등 총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은 군청 민원관에 방문해 3t 미만 소형건설기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교육은 농민들의 안전한 기계 활용을 위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역량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